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영희

2017년 8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정 환

고 영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고영희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8월

<국문초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고영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정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KCYPS 2010년 1차년도 시,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패널집단으로 선정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과정을 통해 전국 27개 지역 중 78개 중학교를 표본집단을 추출하였다. 각 학교별 1개 학급의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에 응답한 대상은 2013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2,108명, 남자 1,075명, 여자 1,033명이 연구 대상이며 이 중 1,941명에 대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긍정적, 부정적), 자아탄력성, 비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과 성적 만족, 비행친구유무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중 긍정적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은 비행과 부적 영향을,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행과 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에 대해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비행에 영향이 있는 변인이 자아탄력성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청소년 비행의 의의	6
2. 부모의 양육태도	13
3. 자아탄력성	19
4. 자아탄력성과 비행,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22
III.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연구절차	26
3. 연구도구	27
4. 연구모형	31
5. 자료처리	32
IV. 연구결과	33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	33
2. 연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현황	34
3.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과 비행의 관계분석	35
4.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37
V. 논의 및 결론	41
1. 논의 및 결론	41
2. 제한점 및 제언	44

참고문헌	46
Abstract	58
부록(설문지)	60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표 III-2. 비행의 문항내용.....	28
표 III-3.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문항내용.....	28
표 III-4.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의 신뢰도.....	30
표 IV-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비행의 차이.....	33
표 IV-2. 연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일반현황.....	35
표 IV-3.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관계.....	36
표 IV-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37
표 IV-5.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39

그림 목 차

그림 III-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31
그림 IV-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38
그림 IV-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장’ 또는 ‘성숙’을 의미하는 청소년은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거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는 성인기에 가깝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결국 아동기에 가까운 시기로 간주되어, 사회구조적으로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준호, 이동원, 1996).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으로서의 청소년기는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장, 발달은 물론 자신의 경험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허진희, 2007).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나 1926년 6·10만세운동, 5·18광주민주화항쟁, 1987년 6·10항쟁, 그리고 최근 수입 쇠고기 반대집회, 미순이·효순이 사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집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청소년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성장의 여러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만 아직 독립된 자아로서 완성된 시기가 아니며 심리적인 문제와 사회관계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시기보다 더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신체적 발달은 급격한데 비해 정신적, 사회적 발달은 그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적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의 확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허진희, 2007).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또래 친구들과의 갈등,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비롯된 학업성취의 부담감과 학교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는 청소년들에게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장경수, 2013).

여성가족부(2014)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

하면 처음 음주나 흡연을 하였다고 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12.9세와 12.6세 이며 흡연이 습관화가 된 시기는 13.5세로 응답하였다. 또한 음주나 흡연을 한다고 하는 답변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음주나 흡연의 평균 이용량이 다소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음주나 흡연 문제는 청소년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은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청소년의 비행은 점점 갈수록 진화해가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생각되던 예전과는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곳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성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카셰어링 서비스나 성인 뺨치는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유되면서 거리낌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2016년 전체 소년범의 연령을 보면 18세 소년범이 2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7세 소년범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14세 이하 저 연령 소년범의 비율이 하락하는 대신에 나머지 연령의 소년범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2015년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를 보면 재산범이 가장 높고, 폭력범, 교통사범 순이었다. 특히 재산범 중 절도범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 구성 비율이 2005년 65.0%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69.4%를 기록하였고, 이후 약간 감소하다가 2014년 70.4%로 증가한 후에 2015년 82.3%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다(청소년백서, 2016).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주로 사회적 배경과 심리적 변인들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사회적 배경 변인 중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기초가 형성되고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은 최초의 사회화 기관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과업을 학습하며, 부모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모방하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것을 배운다(이혜진, 2013).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 중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것으로 강조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Becker(1964)는 주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를 부모의 양육태도라 하였으며,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인이나,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적·언어

적·정서적·사회적 발달과 함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임정화 외, 2012 재인용).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전 생애에 걸친 인간관계에 토대를 이루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왔다(이세경 외, 2011; 정익중 외, 2010).

청소년기는 사회구조상 가정의 보호와 독립된 존재로써 생활을 영위하는 성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학교로, 부모에서 또래집단으로 중요성이 옮겨지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여전히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부모와의 애착형성과 감독과 관심,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거친 욕설이나 폭력, 학대 등이 비행과 상관관계를 보인다(이상균, 2009; 정익중 외, 2010; 이세경 외 2011; 최혜진 외 2011)라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부모가 양육태도를 행함에 있어 아동이 양육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와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이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잘 대해 주어도 아동이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아동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성심, 이종승, 1982). 따라서 Schaefer(1965)과 Kagan(1971)은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아동의 지각을 통해 해석된 양육태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하명선, 이순복, 200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동의 문제행동과 성공적인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심리 내적 접근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허미정, 장석진, 2012). 즉, 아동이 심리적 불만과 갈등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 하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김용주, 2007).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주목하고 있다(정다혜, 2013).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이나 문제 해결 책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응 유연적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압력을 완화시키는 성격적 특성이나 환경적인 보호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박연수, 2003).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며 심리적 안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불안을 경험하거나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성의 부족으로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Klohn, 1996).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자아탄력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고(김미정, 2005), 정서나 행동 문제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더 적응적이라는 연구가 있다(김민정, 2005),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정서·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에 기여하는 환경적 특성으로는 안정된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자의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송미령, 2005; 이상미, 2008).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권은경, 2008; 김대권,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신정희, 2007; 홍하나, 2010).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에는,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 아동의 친밀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Garmezy, 1983; Rutter, 1990; Masten, Best & Garmezy, 1990; 채호숙, 2008 재인용).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경수, 김화경(2011)과 이승애(200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하였다. 길준덕(2010)은 중학생 혹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결과를 보였다. 박인섭(2016)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된 무기력 간에는 일정한 관련이 있고 자아탄력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행에도 매개효과가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비행을 발생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부모양육태도를 통해 형성되는 자아탄력성

에 의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아탄력성이 부모양육태도와 비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유출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적 적응과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소년의 비행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모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비행을 일으키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써 자아탄력성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서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별, 성적, 경제수준, 비행친구 유무에 따라 비행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양육태도가 비행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의 의의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은 시대나 문화, 사회 상황 및 입법 목적에 따라 해당 연령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는 9~24세,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소년법에는 2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발달 단계에 맞춰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숙은 물론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독립을 원하게 되며,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탐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하게 됨으로써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갖기도 하지만 새롭게 주어진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을 둘러싼 사회 자극을 경험하고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며, 자신을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환경과 세대 간의 갈등, 다양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느리게 변화하는 의식구조는 더 많은 갈등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내·외적인 갈등과 혼란 및 그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은 미성숙하고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기에 쉽게 충동적인 행동이나 비행의 유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행(Delinquency)’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장경수, 2014). 비행에 대한 개념규정은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

타나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회체계 내에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공유되고 있는 제도적 기대를 위반한 행동으로 비행을 정의하였고(Cohen, 1995), 허쉬는 한 개인의 행위가 사회의 지배계층에 의해 규정된 규범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를 비행이라고 하였으며 비행행위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지거나 끊어졌을 경우 발생하며 누구든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Hirschi, 1969). 또한 베커(Becher, 1963)는 한 개인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타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숨은 비행의 범주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행이란 넓은 의미에서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일컫는다. 아직 성인기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가 청소년이라 할 때, 청소년 비행이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통제하는 법규범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가치 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부도덕 행위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성미숙, 2004).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구체적으로 청소년 범죄와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윤승현, 2015; 장경수, 2014).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한 주체가 청소년일 경우 이는 청소년 범죄라 하며,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범죄소년¹⁾, 촉법소년²⁾, 우범소년³⁾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인이 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기에는 문제가 되는 흡연, 음주 등의 행위는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이라 말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는 문제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위비행이라고 한다(김준호, 1994). 청소년 범죄는 다른 용어로 중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비행에는 본드나 가스 흡입,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등이 포함되며, 지위비행으로는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가출, 무단결석, 이성과의 성경험 등이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지위 비

1)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법범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진다.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책임을 없다.
 3)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자를 말한다.

행은 청소년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과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라면 중비행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장경수, 2014).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논의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공공의 사회적 가치에 어긋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겠다.

1940년대부터 청소년 비행의 유형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Achenbach(1966)는, 첫 번째 유형을 비사회화된 공격으로 기존 권위에 반항하고, 파괴적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향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공격적인 행동은 덜 하지만, 일탈적 행동을 보이는 사회화된 공격으로 이 유형의 특징은 친구관계가 좋은 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적 비행 유형은 공격성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비행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비행 유형을 분류하여 청소년 비행연구에 사용되었다(박성수, 1991; 김준호, 이동원, 1996). Weiner(1982)가 비행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구분한 비행유형인 사회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성격적 비행, 정신병적 비행에 국내연구에서는 기질적 비행과 실험적 비행을 더하여 여섯 개의 비행으로 구분하였다(박성수, 1991). 첫째, 사회적 비행은 반사회적 행동을 허용하는 하위문화에 근거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하위문화에서 허용되는 범법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경증적 비행은 자신의 환경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벌이는 비행이고, 성격적 비행은 주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행이다. 기질적 비행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범법행위이고, 정신병적 비행은 정신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험적 비행은 일시적으로 비행을 실험해 보기 위해 저지르는 비행을 말한다(강영자 외, 1999).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비행척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폭력비행, 약물비행, 음란물비행, 성비행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비행을 구분하였다. 지위비행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법률상 위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이성과의 성관계 등의 문

제 행위를 의미한다. 폭력비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육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재산비행은 소매치기, 절도, 강도 등의 범죄를 말한다. 약물비행은 상습적, 습관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환각물질, 마약 등이고, 음란물 비행은 음란물의 소지, 시청, 판매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성(性)비행은 잘못된 성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나타낸다(유영재, 2009).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은 먼저 구조기능주의 입장에서 우발적 행위이건, 일시적 행위이건 사회의 규범이나 합의가 흔들릴 때 발생한다고 보는 뒤르켐(Durkheim, 1951)의 아노미 이론이나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한 갈등과 긴장에 의한 머튼(Merton, 1938)의 아노미 이론, 비행이 학습되는 과정을 밝히며 그것이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한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이 있다(Sutherland, 1970). 또한 비행을 하지 않고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비행동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외적 사회 통제 때문이라고 하는 한 허쉬(Hirschi, 1969)의 사회통제이론, 일탈행위의 외적인 봉쇄요인과 내적인 봉쇄요인으로 자아개념을 추가하여 비행통제요인을 살핀 레클리스(Reckless, 1967)의 봉쇄이론, 사람들이 범죄나 일탈로 낙인찍는 행위에 의해 일탈이 정해지며, 그것이 사회적 지위로 작용한다고 본 베커(Becker, 1963)와 사회적 반응에 의한 일탈적 자아개념의 강화로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고 한 레머트(Lemert, 1951)의 낙인이론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다. 최근에는 처벌의 긍정적 효과를 논하는 억제이론과 부정적 효과를 논하는 낙인이론을 절충하면서 개인의 수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 1989)의 수치이론이나 스트레스 또는 좌절감이 범죄나 비행을 야기한다는 애그뉴(Agnew, 1992)의 일반긴장이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비행에 관한 이론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분류한 비행유형을 토대로 지위비행에 해당되는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이성과의 성관계 등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비행, 재산비행과 폭력비행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비행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다. 폭력비행은 물리적 상처와 폭행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주는 폭력도 포함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라는 변인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1) 성별

성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 성 역할의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남성들은 비행을 허용하는 태도나 관심이 주로 환경을 통해 습득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비행을 억제하는 태도를 더 강하게 내면화함으로써 비행의 성차가 생긴다고 한다(이혜진, 2013). 즉 남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지니고 남성성이 선호도가 강한 경우 다른 요인과는 관계없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김준호 외, 1995). 또한 여학생들은 부모와의 애정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위반행동에 대한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을 더 강하게 수용하게 되고, 주위의 비난을 더욱 의식하게 됨으로써 범죄 가능성이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Grasmick 외, 1990).

사회유대이론도 성역할 사회화 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범죄의 남녀차이가 부모와의 애정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Hirschi, 1969). 부모와 애착이 강하거나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우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삼가게 된다는 것이다(이혜진, 2013). 또한, 여학생들이 보다 인간관계 중심적이며, 타인과의 애정관계를 남학생에 비해 더 중시하기 때문에 비행과 범죄에서의 남녀차이가 만들어 진다고 본다(이혜진, 2013). 그러나 성별과 비행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성(性)이라는 단독적인 변인의 영향이라기보다 심리적이나 사회적 인 기제들과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비행 행동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의 경우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비행 유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주동범, 2002; 박은숙 외, 2009; 정미경, 2012). 특히 자아존중감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비행에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Jang 외, 1998).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게 되고,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만약 여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낮다면 남학생들보다 비행에 있어 위

험요인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이혜진,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비행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소득과 성적

소득과 성적도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가정의 심리, 정서적 자본결핍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이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과중한 부담으로 자녀 방임이나 부적절한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송영혜, 2007).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공격적인 가능성이 크고(오정수 외, 2008), 경제적 빈곤은 비행친구와 어울리는데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기능적 부적응 수준이 높은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는 대안방법으로 비행친구들과의 교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비행행동을 저지를 가능성 역시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정익중 외, 2010).

Kohn(1963)은 부모의 소득, 직업에 따른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의 내면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데 책임감을 느끼는 반면, 하위계층의 부모는 변화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며, 자녀를 강제하게 되고 이러한 양육방식의 차이가 비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Kohn, 1963; 이혜진, 2013 재인용). 그러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가정 자녀들이 무기력함, 열등감, 사회에 대한 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을 초래할 확률이 크고, 이에 따른 가정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도 중상류층 청소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신혜섭, 2005).

성적의 경우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통제이론에서 사회적 유대요소를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의 네 가지로 제시한다(Hirschi, 1969). 네 요소 중 전념은 청소년들이 사회에서의 일에 비중을 얼마나 많이 두는가를 의미한다. 청소년기에 사회에서의 일은 학교공부를 의미할 수 있는데, 학교공부에 전념하는 청소년은 비행을 하게 되면 학교성적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상급학교 진학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손실을 생각해 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반해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은 비행으로 잃어버릴 것이 많지 않아 망설임 없이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유영재, 2009). 성적이 낮은 경우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옳을 것이 적기 때문에 비행이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교사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이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들이 있다(성지희 외, 2007).

(3) 비행친구

또래 친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친구의 영향력이 증대된다(이상균, 2008b). 청소년 비행과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행유무와 관련 없이 어울리는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김병재, 1990), 비행청소년의 경우 친구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연구(김혜원 외, 2000). 친구와의 애착은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혜섭, 2005)들이 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 영역에서 비행친구가 비행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차등적 교제이론에서는 범죄의 학습은 친밀한 집단속에서 사람들 간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발생한다(Sutherland, 1947). 즉 법이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비행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어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Sutherland, 1947; 이혜진, 2013 재인용). 이 이론에서 비행은 개인의 범죄 기질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차등적 교제이론을 지지한 Matsueda(1987)는 비행친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빈번한 교제를 통해 전달되는 비행관련 기술과 비행의 동기와 가치, 특히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비행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발표하였다(Matsueda, 1987). 국내연구에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과 접촉하면서 비행의 가치를 습득하고, 비행기술을 익히면서 범죄화 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노성호, 1993).

Alkers(1979)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과 일반적 행위에 따른 반응이 강화와 처벌을 통한 학습 혹은 모델화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즉, 비행친구와 교제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친구의 행동을 보면서 비행행동을 따라 배우게 되며, 비행친구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발생하는 보상과 강화를 통해 비행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은 비행집단 내

에서는 비행이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기대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행친구의 직·간접적인 비행의 영향을 주장했다(Alkers, 1979; 이혜진, 2013 재인용).

청소년의 비행과 비행친구와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윤소영 외, 2011), 비행경험 및 친한 친구의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빈도가 많아진다는 연구(정하은 외, 2012)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행경험이 많고 일탈성향이 높은 친구들과의 교류가 비행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이라고 지적한다(노성호, 2006; 이성식, 2007; 이상균, 2008a).

2. 부모의 양육태도

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써 가정은 인간의 지적발달과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고 습득하는 곳이다(정다혜, 2013). 가족구성원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환경은 어떤 외형적, 물리적 환경보다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전민영, 2009),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환경,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질과 그 유형에 따라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정연우, 2009). 즉,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자이며, 자녀의 성격과 대인관계 형성에 최초 모델이 되므로, 부모가 가진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이화림, 2001).

학자의 입장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Schaefer, 1965; 이향선, 200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 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를 다룸으로써 각각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행동과 양육태도는 학자

에 따라 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개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었는데 1970년대부터 추상적인 양육태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이수국, 2012). 본 논문에서는 양육행동과 양육태도를 구별 없이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에는 부모의 성격뿐만 아니라 정서상태, 가치관,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가족구성, 가정의 분위기,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와 자녀의 개인 조건 등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양문현, 1983).

부모의 안정된 관계는 자녀들을 긍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반면, 부모와의 불안정한 관계는 자녀들이 자신이나 타인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Lynch & Cicchetti, 1997; 이응택, 2011 재인용).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윤영옥, 2002). 그리고 부모가 보는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의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성연, 1981). 여기서 ‘지각’이란, 지각 심리학에서 개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상이 그 개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개인적인 의미이다(최정훈, 1981). 따라서 자녀는 개인적 의미에 의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김지혜, 2017). 이와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희수,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지각하고 나타내는 일관성이 있는 반응양식을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하였으며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명명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구체적 연구에 적용하

여 하나의 이론으로 개념화시키거나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김성훈, 2012).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원분류는 연구자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유형들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이승국, 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접근방식은 형식상 차원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원론적 접근은 서로 다른 양육태도의 측면들을 측정, 분석하여 양육태도의 중요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어떤 형태로 연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유형론적 접근은 자녀양육의 보편적인 방식이나 유형 등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로 양육척도를 구성하는 것이다(이수국, 2013). 처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여 체계화한 Symonds(1949)은 차원론적 접근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부모-자녀관계를 수용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수용-거부 차원과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지배 혹은 복종하느냐에 따라 지배-복종의 2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유형사이에 무시, 방임, 익애, 잔인의 태도를 포함시킨 직교좌표를 보여주었다.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Schaefer(1959)는 양육태도를 두 개의 양극적 차원인 애정-거부, 자율-통제로 대변하는 가설적인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 모형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모양육태도 모형이다.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익애형과 거부적이면서 자율적인 방임형은 서로 대조를 이룬다(Schaefer, 1959). Schaefer는 애정-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다른 형태의 양육태도로 양육된 아동들은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Schaefer, 1959).

유형론적 접근의 대표자인 Baumrind(1966)는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세 가지 양육태도로 구분하였고, Baldwin(1949)은 애정, 방임, 민주의 세 가지 유형으로, Becker(1964)는 온정과 적대, 감정적 개입 대 냉정한 초연함, 그리고 제한 대 허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국외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에 평가도구들 간에 개념적인 조작적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양육태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검사가 없고, 평가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와 관련된 오류가 많고, 외국의 평가도구들을 그대로 번안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한국적인 양육태도 요인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허묘연, 1999). 그 결과 개념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요인을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학대로 나누었다(허묘연, 1999).

첫 번째,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방과 후에 누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허묘연, 1999).

두 번째,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다. 예를 들면, 칭찬을 잘해 주고, 애정표현을 하고, 의견을 존중해 주며,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 행동이다(허묘연, 1999).

세 번째, ‘합리적 설명’은 자녀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임과 동시에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허묘연, 1999). 구체적으로, 자녀의 어떠한 행동이 용납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동기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해결안을 찾으려는 태도가 포함된다.

네 번째,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허묘연, 1999). 구체적으로,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는 것이나 타인을 의식하여 행동이 달라지거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다섯 번째,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능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녀에게 최고가 되기를 강요하고 지적인 성취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허묘연, 1999).

여섯 번째, ‘과잉간섭’은 과잉보호와 과잉통제 두 요인으로 양분되는 내용인데,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

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로 정의된다(허묘연, 1999). 구체적으로,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행동과 간섭이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자녀의 전반적인 영역 발달에 무관심하고 적절한 훈육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허묘연, 1999).

여덟 번째,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자녀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과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사소한 잘못의 결과로 또는 이유 없이 자녀에게 상처가 남거나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한다(허묘연, 1999).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허묘연(2002)의 연구와 같이 구분하고, 김현주, 홍상황(2015)의 연구에서처럼 긍정적 양육태도를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으로 분류하였고, 부정적 양육태도를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들은 신념, 가치관, 사회적 역할과 태도 등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행동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허묘연, 2004), 자녀의 성격과 행동, 정서·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최혜진 외, 2011), 청소년 비행에 핵심적 영향 요인이라고 강조되고 있다(김유자 외, 2000; 김재엽 외, 2008; 김지희 외, 2012; 이성식, 2007; 임성옥 외, 2011; 정익중 외, 2010; 황성현, 2012).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강조한 이론으로써 청소년은 누구나 비행동기를 가지고 있어 비행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비행을 저지르기 쉽지만 부모와의 유대가 강할 때 비행동기가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부모와의 유대가 강한 청소년은 비행의 기회 상황에서도 부모의 부정적 반응을 예상하여 비행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이혜진, 2013). 또한 Hirschi(1969) 억제 이론에서도 부모의 통제나 처벌이 강력한 상황에서는 범죄 이후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하기 때문에 범죄나 비행이 제지된다고 본다(이수진, 2006).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에 의해 촉발되며, 이러한 긴장요인이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 행동의 결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하는데, 즉 부모와의 갈등이나 학업의 부진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Agnew, 1992; 이혜진, 2013 재인용).

사회형성모델은 부모의 지지나 감독이 부족할 때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부모가 일관성이 없거나 관대하기만 한 양육행동을 할 때 자녀는 혼란을 겪게 되고,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부적절한 훈육이나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가 비행의 개입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으로(이혜은 외, 2008), 사회통제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긴장이론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긴장 속에 살게 되는데, 특히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발생하는 학대 등이 부정적인 심리상태인 긴장을 일으키고, 공격성을 높이게 되며,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이 발생된다고 본다(김재엽 외, 2008).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애정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협동적, 우호적이고 정직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중한 성격을 나타내며, 수용과 애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Sears, 1965; 이효심, 2011 재인용). 부모의 일관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비일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서찬란, 2006), 하영희(2004)는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은 품행장애와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엄격하고 애정적일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허모연(2000)의 연구결과에서 보고되었다. 양육과 자녀의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부모의 단순한 존재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중요하며 긍정적인 부모와

의 관계는 자녀의 비행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원소희, 2001).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 간의 일치된 결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을 낮게 지각할수록,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을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소미강, 2008). 송영희(2013)은 부모의 과보호, 돌봄 부족, 학대가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허묘연과 옥정(2013)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과잉기대, 비밀관성,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낮아지고,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높아졌다(김경희, 황혜정, 1998; 서유경, 2002; 김미선, 2005; 윤혜미, 2005; 방경숙, 유혜라, 현명선, 2010; 최은실, 201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수용적과 같이 긍정적일수록 자녀들의 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며(이선경, 이재연, 1998; 하영희, 2003) 이와는 반대로 불안, 위축, 공격, 과잉행동, 미성숙 행동 등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손석한 외 2001; 조계연, 이은희, 2007). 부모가 거부적·통제적이고 감독을 적게 하고 방임하거나 비밀관성, 과잉간섭을 보일 경우 아동의 공격, 우울, 반사회적 문제행동은 높아졌다(김준호, 김선애, 1996; 김귀연, 김경연, 2005; 권재환, 이은, 2006; 임지희, 2013; 한동현, 김완일, 2013;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3.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의 개념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탄력성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탄력성은 'resilience', 혹은 'resiliency'을 번역하여 탄력성이라 하며, 아직까지 통일된 용어가 없기 때문에 탄력성이라는 단어만으로 번역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 적응 유연성, 회복력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은희, 2007). 즉, 탄력성이란 개인의 적응을 방해하는 외적자극으로부터

잠재적인 적응을 유지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기제로 정의되며,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적인 환경에서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Rutter, 1979; 차은주, 2010 재인용). 탄력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한데, Garmezy(1993)은 심각한 고난이나 역경과 같은 높은 위험상태에 있거나 만성적 스트레스, 그리고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외상 경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탄력성이라고 정의했다.

Masten(2001)은 발달이나 적응에 관한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과나 유능성 등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았고, 고위험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임을 밝혔다. 따라서 Masten은 탄력성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적응기제이므로, 자아탄력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명확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구별되어 다루는 자아탄력성이 있다.

우선 Block(1982)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보았다(조은희, 2007 재인용). 또한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내부, 외부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 재구성능력, 다양하고 긍정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해, 자신이 직면한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여유롭게 대처하고, 문제 상황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말한다(김경민, 2010). 자아탄력성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및 개념을 종합하면, 좁은 의미로 개인이 감정자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자원이고, 넓은 의미는 내적·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 능력을 의미한다(조은희, 2007). 또한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자아통제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기도 하다(Rutter, 1985; 조은희, 2007).

Petersen과 Hamburg(1986)에 의하면 특히 청소년기는 결정적 전환기로서, 개인 내적·외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이에 따라 다른 발달 단계보다 더 쉽게 상처받기도 한다(김화경, 2009 재인용). 그러나 어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비교적 잘 반응하고 적응하기도

한다.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정서적 문제나 심리적 장애를 겪지 않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도 한다(염혜경, 2017).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이 원만하게 발달되면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기제가 형성된다. 더불어 청소년기는 가정 내,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아탄력성이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황여정, 김경근, 2014).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탄력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개인 심리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에는 개인 자신의 이상을 넘어 공동의 이상이나 타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비행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자아탄력성의 정의들을 통합·분석한 토대로 정여원, 김정아(2015)의 연구처럼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서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적응, 사회적 능력, 사회적·신체적·심리적 안녕을 이끌기 위해 대처하는 개별화되고 통합된 개인의 자원이자 능력’이라고 자아탄력성을 정의하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으며(김화경, 2009), 부모의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강고운, 2015). 또한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조계연, 이은희, 2007).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은경, 2008). Swanson과 Valiene, Lemery-Chalfant와 O'Brien(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아탄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LaFromboise와 Hoyt, Oliver와 Whitbeck(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부모의 지지는 보호요인으로써 자아탄력성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감소하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다(김원자, 서경현,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 때에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으며(조은정, 201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박민지, 유미숙, 2011).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경우,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송미령, 이재연, 2011).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고 한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자아탄력성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부적인 효과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신태섭, 이현주, 전희경, 201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일치 정도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아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보호요인으로써 자아탄력성이 작용되며,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다.

4. 자아탄력성과 비행,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두 변인 간의 부적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고 (김윤희, 2001; 김미정, 2005), 학업중단 비행청소년 집단의 자아탄력성이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이성,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보고하였으며(김정하, 2012),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박새와,

2012).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낮아졌다(김미정, 2005; 안동민, 이인혜, 2013).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부정적인 생활사건보다 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었고(김보라, 2010), 가정환경 위험요인 및 가족기능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는 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미정, 장석진, 2012; 이순옥, 최연희, 2014). 이순옥과 최연희(2014)은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임을 보여주었다. 자아탄력성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욱 지각하며 더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지은, 2003). 부모와 동거하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더 높았고, 또래에 대한 애착과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태도, 자존감이 자아탄력성을 의미있게 설명했다(권지은, 2003). 학령기 집단따돌림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모두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적응과 자아탄력성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종원, 진혜경, 최윤정,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졌다(권은경, 2008; 조순중, 2010; 서정숙, 2010; 강고은, 손서희, 2015). 그러나 부모의 과보호와 자아탄력성은 상관이 없는 선행 연구결과도 있었다(조계연, 이은희, 2007). 몇몇 연구들에 의해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어진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의 적응 역시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였으며(구자은, 2000),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가정환경변인보다 더 큰 설명력을 보여준다(이윤주, 200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청소년에게 있어 자아탄력성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험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시험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고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수준도 낮았다(김교현 외, 2005). 즉 시험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기준과 시험스트레스 유발로 인한 신체화 증상의 경험 수준이 자아탄력성에 의해 중재됨을 보여준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뚜렷하게 보인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라고 보고한다. 이는 개인의 기질적인 부분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적응 행동을 매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장진아, 신희천; 2006).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하여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은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와 가족유대를 통하여 밀접하고 신뢰 관계로 발전시켜 결국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고 보호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냈다(조계연, 2006). 또한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 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애정적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기 청소년의 탄력성을 형성하고 발달시켜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고(조계연, 이은희, 2007), 가정 내 위험요소를 가진 청소년들 중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뚜렷하게 매개역할을 하여 유연한 적응적 발달을 보였다고 밝혔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또한 모-자녀의사소통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나며, 외현화 행동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자녀 문제형 의사소통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승채, 2008).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한영민, 2010).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거나 자율적일 때 자녀는 자아탄력성이 높고,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와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증대되는 반면, 부모의 과잉 간섭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낮추고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신지연, 이윤주, 2006; 조은정, 2012)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탄력성 형성과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자녀 개인의 내적인 보호요인으로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중요한 적응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의 자료 중 4차년도인 2013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의 7년간 실시되는 종단패널조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영역을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으로 나누고, 각 영역 안에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은 KCYPS 2010년 1차년도 시,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패널집단으로 선정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과정을 통해 전국 27개 지역 중 78개 중학교를 표본집단을 추출하였다. 각 학교별 1개 학급의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후 2013년 설문지에 응답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2,108명, 남자 1,075명, 여자 1,033명이 연구 대상이다. 표본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이유는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백서」의 청소년 연령별 범죄현황에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7세에서 19세 사이의 범죄가 가장 높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결측치와 불성실응답, 그리고 양육자가 부모인 조사대상자 1,941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가구 연소득, 성적의 만족도, 비행친구의 유무를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전체(N=1,941명)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982	50.6
	여자	959	49.4
가구연소득	1,000만원 이하	51	7.5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522	26.9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94	40.9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4	16.2
	7,000만원 초과	260	13.4
성적	만족하지 않는다	1,276	65.7
	만족한다	665	34.3
비행친구	친한 친구 중 비행친구 없음	1,065	54.9
	친한 친구 중 비행친구 있음	876	45.1

2. 연구절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수집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선정 과정을 보면, 201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1학년 재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이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표본을 반복 조사하는 종단적 조사 설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2010년 기준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4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한다. 조사대상 선정과정을 보면, 2010년 4월 기준으로 교육부의 전국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사용하여 전국을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16개 시·도를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27개의 집락으로 나누며 목표표본수를 정하고 각 시·도별 층별 배분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남녀공학과 여학교, 남자학교로 구분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적용하러 총 78개의 표본 학교 수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선정은 난수를 발생시켜 우열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고 추출하였다. 조사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보호자 조사는 유치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부터는 매년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

였고, 보호자는 전화면접조사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SES)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패널 가구에 조사 예고문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패널부모 및 패널청소년과의 전화접촉 후 협조 요청하여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개별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학생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패널이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여 소정의 응답 사례품을 지급하였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패널을 다시 전화해 재약속 후 조사를 하거나 연락을 회피하거나 참여거절의사를 밝힌 이탈위험 패널은 특별관리를 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가정통신문 수령 및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설명 후 조사협조요청을 하여 부모용 질문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종속변수

(1) 비행

본 연구에서 청소년비행이란 ‘청소년이 형법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청소년으로 걸맞지 않는 행위’로 개념화하였다.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14개 행위(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가출경험, 아는 친구와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뺏뜯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헐박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 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하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동원의 척도를 이용하여 지위비행(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경험), 폭력비행(패싸움, 폭행, 헐박), 재산비행(뺏뜯기, 절도)와 이혜진(2012) 연구에 사용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2문항 각각의 비행경험여부의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비행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의 경험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청소년 비행의 Cronbach's α 는 .540이다.

표 III-2 비행의 문항내용

구분	문항수	문항
비행	12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가출경험, 아는 친구와 성관계,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리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헐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다른 사람 물건 훔치기

2) 독립변수

(1)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성장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 유형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가 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김경민, 2010).

본 패널의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태도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중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 등 총 10문항이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비밀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김현주와 홍상환(2015)의 연구에서의 구분방식을 따른 것이다. 21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이용되었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Cronbach's α 는 .855이며, 부정적 양육태도의 Cronbach's α 는 .846이다.

표 III-3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문항내용

변수	문항수	문항내용
긍정적 양육태도	10	
감독	3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애정	4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합리적 설명	3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 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 씀해 주신다.
부정적 양육태도	11	
과잉간섭	4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 게 하신다.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과잉기대	4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야 부담스럽다.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다.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비일관성	3	같은 일이라도 어떤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치신다. 부모님(보호자)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태 도가 평소와 다르다.

분석에 사용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Ⅲ-4 와 같다.

표 III-4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의 신뢰도

변수	Cronbach's α
긍정적 양육태도	0.855
감독	0.764
애정	0.805
합리적 설명	0.775
부정적 양육태도	0.846
과잉간섭	0.721
과잉기대	0.685
비일관성	0.678

긍정적 양육태도의 각 하위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감독 .764, 애정 .805, 합리적 설명 .775이고 부정적 양육태도의 각 하위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과잉간섭 .721, 과잉기대 .685, 비일관성 .678이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하위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하위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환경에서 청소년이 주어진 상황적 요구에 민감하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구사하는 역동적인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이상미, 2008). 넓은 의미로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능력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 능력을 조절하고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명순, 2012).

Block &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R)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 맥락이 요구하는 기능인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와 같이 자아탄력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총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척도화 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14-56점이다. 높은 점수는, 적응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사건 경험 후에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유성경(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권지은, 2003, 재인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에서 18세와 23세의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8이었다. 자아탄력성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4.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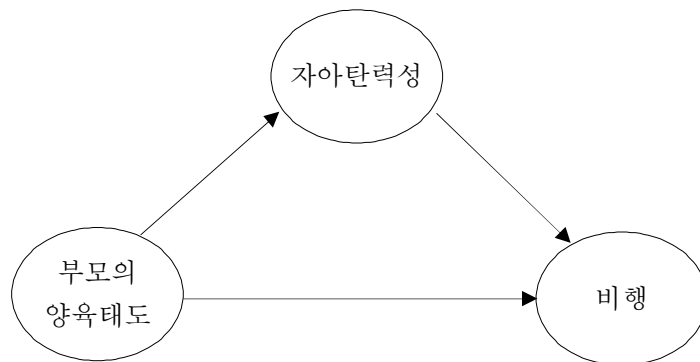


그림 III-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5.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중 1 패널 데이터 가운데 4차년도(2013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SPSS 18.0을 통계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모형의 각 변수들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고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주요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청소년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ANOVA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태도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경제수준, 성적의 만족, 비행친구 유무를 중심으로 비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IV-1 과 같다.

표 IV-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비행의 차이

		(N=1,941)		
	구분	M	SD	t/F
성별	남자	.282	.450	10.228***
	여자	.103	.304	
경제수준	상	.182	.386	2.589
	중	.178	.383	
	하	.225	.418	
성적	만족함	.168	.375	2.037*
	만족하지 않음	.206	.405	
비행친구	있음	.056	.230	-18.273***
	없음	.360	.480	

1. * $p < .05$, ** $p < .01$, *** $p < 0.001$

2. 성별: 남학생(n=982), 여학생(n=959)

3. 경제수준: 상(n=574), 중(n=794), 하(n=573)

4. 성적: 만족함(n=665), 만족하지 않음(n=1,276)

5. 비행친구: 있음(n=876), 없음(n=1,065)

비행은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비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적수준에 대한 만족을 비교하였을 때 성적에 대해 만족하지 않은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비행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친한 친구 중 비행친구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친한 친구 중 비행친구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현황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에서 자아탄력성이 상호작용하여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연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IV-2 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평균값은 2.959(SD=0.455)이었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감독은 3.106(SD=0.572), 애정은 2.998(SD=0.547), 합리적 설명은 2.774(SD=0.581)로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평균값은 2.278(SD=0.500)이었다. 하위영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과잉간섭은 2.206(SD=0.604), 과잉기대의 평균은 2.450(SD=0.565), 비일관성의 평균은 2.178(SD=0.614)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평균은 감독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비일관성 수준이 가장 낮았다. 자아탄력성 평균은 2.190(SD=0.392)이다. 비행의 경우, 청소년들은 평균 0.313의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연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일반 현황

(N=1,941)

구분	M	SD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2.959	.455
감독	3.106	.572
애정	2.998	.547
합리적 설명	2.774	.581
부정적양육태도	2.278	.500
과잉간섭	2.206	.604
과잉기대	2.450	.565
비일관성	2.178	.614
자아탄력성	2.190	.392
비행	0.313	.756

3.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과 비행의 관계 분석

1)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설정된 변수들의 회귀식 투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IV-3 과 같다.

표 IV-3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의 관계

변인	1	2	3	4	5	6
1 소득수준	1					
2 성적만족	-.054*	1				
3 비행친구	-.002	.013	1			
4 긍정적부모양육태도	.089**	.074**	-.062**	1		
5 부정적부모양육태도	.012	-.009	.106**	-.151**	1	
6 자아탄력성	-.075**	-.066**	-.082**	-.323**	-.047*	1
7 비행	-.020	-.048*	.349**	-.080**	.086**	-.081**

* $p < .05$, ** $p < .01$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은 비행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비행은 유의도 0.05수준에서 성적만족에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비행친구의 유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은 유의도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비행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적만족은 비행과 부적(-)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비행친구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비행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양육태도는 비행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행과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또래친구가 비행경험을 갖고 있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개인의 내적심리적인 요인인 자아탄력성이 충분히 발휘하지 않을 경우 비행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에 의해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4 와 그림 IV-1 와 같았다.

표 IV-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F	B	SE	β	t
1단계	자아탄력성	긍정적양육	.104	225.819***	-.279	.019	-.323	-15.027***
2단계	비행	긍정적양육	.005	10.064**	-.062	.0320	-.072	-3.172***
3단계	비행	긍정적양육 자아탄력성	.021	20.598***	-.099 -.133	.021 .024	-.115 -.132	-4.823*** -5.566***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279		표준오차SE(a)=.019			
Z=4.489***			비표준화 회귀계수B(a)=-.099		표준오차SE(a)=.021			

* $p < .05$, ** $p < .01$, *** $p < 0.001$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긍정적 양육태도가 비행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인 종속변수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1단계 분석모형에서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통계값은 225.819이다. 유의확률 .001으로 긍정적 양육태도 점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자아탄력성의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해주고 있다.($t = -15.027$, $p < .001$). 자아탄력성 점수 총 변화량의 10.4%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점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통계값은 10.064이다. 유의확률 .01으로 부모양육태도 점수는, 유의수준 .01에서 비행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t=-3.172, p<.01$). 비행의 점수 총 변화량의 0.5%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점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단계 분석모형에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9.572이다. 유의수준 .001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비행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행 총 변화량의 2.1%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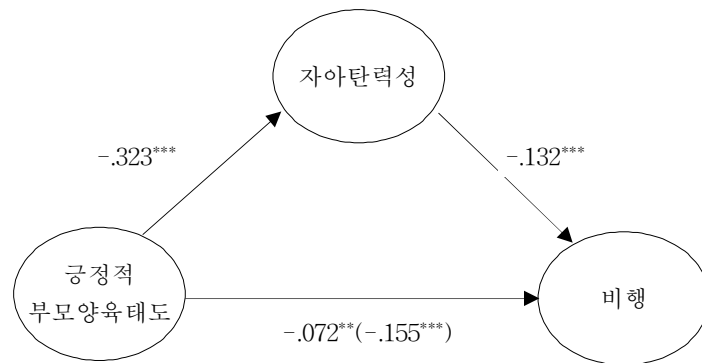


그림 IV-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위와 같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를 검정을 위한 모든 단계가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었다. 3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072에서 -.155로 증가하여 매개효과가 없다.

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에 의해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5와 그림 IV-2 와 같았다.

표 IV-5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R^2	F	B	SE	β	t
1단계	자아탄력성	부정적양육	.002	4.331*	-.041	.018	-.047	-2.081*
2단계	비행	부정적양육	.007	12.713***	.064	.018	.081	3.566***
3단계	비행	부정적양육, 자아탄력성	.015	14.639**	.060 -.092	.018 .023	.076 -.092	3.384** -4.058***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041	표준오차SE(a)=.018					
Z=1.979		비표준화 회귀계수B(a)=-.092	표준오차SE(a)=.023					

* $p < .05$, ** $p < .01$, *** $p < 0.001$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정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정적 양육태도가 비행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인 종속변수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1단계 분석모형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통계값은 4.331이다. 유의확률 .05으로 부정적 양육태도 점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자아탄력성의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t = -2.081$, $p < .05$) 매개분석을 위한 1단계가 충족되었다. 또한 자아탄력성 점수 총 변화량의 0.2%가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 점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통계값은 12.713이다. 유의확률 .001으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점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비행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고($t = 3.566$, $p < .001$) 매개 분석을 위한 2단계 역시 충족이 되었다. 비행의 점수 총 변화량의 0.7%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점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단계 분석모형에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14.639이다. 유의수준 .01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에서 비행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행 총 변화량의 1.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위와 같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를 검정을 위한 모든 단계가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었다. 3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081에서 .076로 감소하였으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정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1.979$ $p<.05$)

본 연구결과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IV-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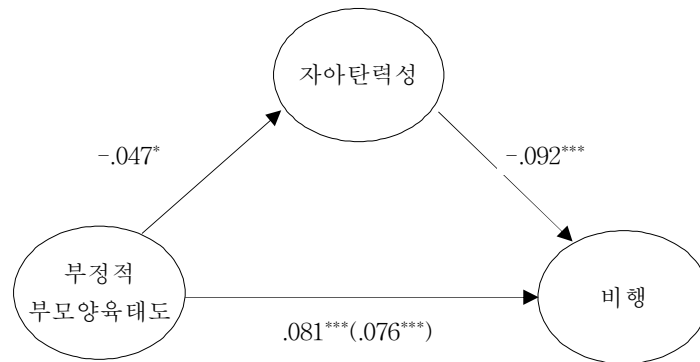


그림 IV-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즉, 그림 IV-2에서 독립변인인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081$)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047$)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또 자아탄력성에서 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092$)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거쳐 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076$)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즉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거쳐 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회귀계수($\beta=.081$)보다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으로 가는 경로 회귀계수 ($\beta=.076$)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들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림 IV-2 과 같이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아동 패널조사 4차년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10년 4월 기준으로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16개 특별시, 광역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중학교를 지역별 층화하였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결과 27개 집락으로 나누며 표본의 수는 총 2,351 명이다. 매년 조사대상에 대하여 주기를 반복조사를 하여 4차년도 중1패널의 89.7% 원표본유지율을 통하여 진행된 2,108명이다. 그 중 연구자료로 사용한 조사대상자는 1,941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변수간의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하고자 위계적 회계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행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이 모두 유의미한 변수였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과 성적만족, 비행친구유무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성별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았다(이혜진, 2013; 신혜섭, 2005; 유영재, 2009; 노성호, 2006; 이성식, 2007).

둘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평균은 2.959(SD=.45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평균은 2.278(SD=.500)이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수준이 가장 높았고, 비밀관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 부정적)와 자아탄력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행친구(+)가 청소년의 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 부정적양육태도(+), 긍정적양육태도(-), 성적(-)만족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 긍정적 양육태도,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은 감소하고,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은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또래 친구가 청소년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친구의 영향력이 증대된다(이상균, 2008b)라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보아 비행에 영향을 준다.

자아탄력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정 및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이끌어내 비행에 대하여 자기방어가 강한 것으로 예측된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긍정적 양육태도가 비행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애정과 자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함으로써 비행이 발현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불안정한 정서와 역기능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에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비행과는 유사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적응 행동을 매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진아, 신희천; 2006)라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연구를 살펴보았던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현순, 2005). 또한 이승현(2009)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게 되었다. 유성경, 홍세희와 최보운(2004)은 가정 내의 위험요소를 가진 청소년들 중 적응적인 발달을 보인 청소년들에게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유성경, 2004).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미록(2006)의 연구, 자아탄력성이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을 밝힌 김경은, 최은희(2010)의 연구 등의 결과를 통해 가족은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와 가족유대를 통하여 밀접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서 결국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고 보호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김은주, 2011).

따라서 청소년기 비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 양육태도 보다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스트레스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긍정적인 관심이 이루어진다면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가 지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둬으로써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원인이 되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자아탄력성이 비행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는 물론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모의 양

육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아탄력성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잘 극복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적절히 자아탄력성을 계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적응하지 못할 경우 충동적인 문제 행동이나 비행은 저지르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은 오랜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자아탄력성이 지속적으로 계발되고 안정되게 형성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 사회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을 신뢰하며 타인과 함께 하는 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다.

2. 제한점 및 제언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들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체계 사이의 상호작용과 교류적 맥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비행에 자아탄력성이 매개하고 있음을 검증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구성에 패널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변인들만으로 구성되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종단적조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사연도에 빠져 있는 문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년도별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에 표집한 중 1패널을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학년의 비교 등 경로를 확인하는데 부족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복합적인 비행을 한다는 점에서 비행의 개념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행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비행유무와 횟수로만 파악이 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 할 수 측정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청소년 비행에 대한 주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변인의 선정과정에서 자아탄력성에 관련된 변인에 국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중요한 다른 변인들을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영역과 비행의 하위영역을 구체화하여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살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고은, 손서희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5, 243.
- 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한 부모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서의 매개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23(-), 29-50
- 강영자 (1999). 비행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5(2), 245-254.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경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재환, 이은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61.
- 권지은 (2002).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 (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준덕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 김경은, 최은희 (2010). 가족 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김경희,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1(1), 12-26

- 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3-126.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한국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대권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록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및 비합리적 신념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 (2005).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5). **부모갈등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 (198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라 (2010).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연구**, 48(3), 1-14.
- 김성훈 (201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또래애착: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주 (2007). **초등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와 아동의 인식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1). **부모갈등이 아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통제신념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자, 서경현 (201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3), 517-222.
- 김은주 (2011). **중학생의 자아분화, 자아탄력성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협, 송아영, 박경나 (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지위비행에 관한

- 연구: 긴장요인으로서의 자녀학대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295-318.
- 김정하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원, 진혜경, 최윤정 (2001).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 성향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1)
- 김준호 (1994).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17.
- 김준호, 김은경 (1995). 여자 청소년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이동원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1996). 한국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선애 (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7(1), 168-174.
- 김진희, 이상록 (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5-387.
- 김현순 (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홍상황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14(1), 45-64
- 김화경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 (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백서 2004**
- 박민지, 유미숙 (2011).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서향에 미치는 영

- 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29-38.
- 박새와 (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희망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 (1991). **청소년 비행의 교육, 심리학적 이해**. **형사정책연구**, 2(3).
- 박승채 (2008).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자기 통제력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수 (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숙, 조오숙, 김영희 (2009). **부모의 훈육방식과 청소년의 성, 연령, 자아개념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13-241.
- 박인섭 (201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인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경숙, 유혜라, 현명선 (2010). **빈곤계층 양육자의 양육관련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정신간호학회지**, 19(4), 437-446
- 서유경 (2002).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숙 (2010). **부모 부부갈등과 기혼자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기혼자녀의 자아탄력성, 성의 매개효과**.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찬란 (2005). **가족환경요인 및 개인심리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숙 (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 및 비행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지희, 정문자 (2007).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아동학회지**, 28(5), 1-18
- 소미강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회지*, 40(4), 605-615.
- 송미령 (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령, 이재연 (2011).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19-244
- 송영혜 (2007). **또래관계 진단과 치료**. 서울: 집문당.
- 송영희 (2013). **아동기의 외상 및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정희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태섭, 이현주, 권희경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 관계. *열린교육연구*, 23(3), 45-64.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안동민, 이인혜 (2013). 아동의 지각된 표출정서, 자아탄력성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297-316.
- 양문현 (1983). **도시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2016**」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mogef.go.kr>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노트*.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오정수, 정익중 (2008).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유영재 (2009). **청소년 비행의 통합적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학습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영옥 (2002). 집단 따돌림 피해자 및 가해가자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기술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승현 (2015). 청소년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 (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133-164.
- 원소희 (2001). 청소년비행원인에 관한 연구: 미누친의 가족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 (2012).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 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9).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 양육행동 간의 병렬적 잠재성 장 모형 분석: 청소년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가?. 한국가족복지학, 27, 243-266
- _____ (2008b).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39, 315-342.
- 이상미 (2008).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경, 이재연 (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 성 (2006).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 (2007). 청소년 비행과 비공식 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18(3), 1105-1127.
- 이세경, 김영혜 (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45-266.
- 이수국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06). 비행에서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4,

214-252.

- 이순옥, 최연희 (2014). 가정환경 위험요인과 자아탄력성이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3), 484-494.
- 이승국 (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애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 (2009).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2), 440-442.
- 이응택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선 (1999).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림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은, 최정아 (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197-221
- 이혜진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심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남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미친 영향. 성균관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옥, 박민정 (2011).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빈곤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0), 229-252.
- 임지희 (2013). 부모의 과잉간섭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 334.

- 임정화, 전종설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01-126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123-138
- 장경수 (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민영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 통제성과 학교생활 만족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혜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행동 문제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6(1), 271-290.
- 정여원, 김정아 (2015). 자아탄력성에 대한 개념분석. **성인간호학회지**, 27(6), 644-655
- 정연우 (200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통제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이은주 (2010). 비행 또래 집단과 청소년 비행 간의 역동적 관계.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논문집:3-29**
- 조계연, 이은희 (2007). 초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조순중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2), 59-81.
- 조은정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 조은희 (2007). **대안학교 청소년의 자각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동범 (2002).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지각된 양육방식이 초기 청소년의 자기통**

- 차은주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내내성,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호숙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훈 (1981). **지각심리학**. 서울: 을유문화사.
- 최혜진, 최연실, 안연주 (2011). 부모양육태도, 자기통제력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113-133.
- 하명선, 이순복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하여희 (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4(4), 29-40.
- _____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학회지**, 25(2), 121-13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제1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청소년 비행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동현, 김완일 (2013).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247-263.
- 한영민 (201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도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허묘연, 옥 정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3(3), 116-123.
- 허미정, 장석진 (2012).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211-1231.

- 허진희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외모·경제 스트레스, 자아개념의 제 차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하나 (2010).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현 (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 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 연구*, 19(10), 23-43.
- 황여정, 김경근 (201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또래 관계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Baldwin, A. L. (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8-61.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Minneapolis: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7, 3-46
- _____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 43-88.
- Becker, H.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Free Press.
- Block, J. & Krema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aithw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rgration*. Cambridgege University Press
- Cohen, A. (199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Chicago: Free Press.
- Durkheim, E.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lated by J. A. Spaulding & G. Simpson.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ance.

- Garmezy, N. (1983). Children in poverty ;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9.
- _____ (1983). *Stressors in childhood. In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 McGraw-Hill.
- Grasmick, H. G., R. J. Bursik.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24*, 837-861
- Hirs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gan, J., & Messer. S. B. (1975). A Reply to some misgivings about the 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 as a measure of reflection-impulsivity. *Development Psychology, 11*, 244-248.
- Klohnen, E. C., Vandewater, E.A. & Young, A. (1996). Negotiating the Middle Years: Ego-resiliency and successful midlife adjustment in women, *Psychology and Aging, 11*, 431-442
- Kohn, L. M (1963).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4), 471-480
-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Springer.*
- Lynch, M., & Cicchetti, D. (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 81-99.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erton. R.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 Reckless, W. (1967). *The crime problem. New York: Appletin-Century Crofts.*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chaefer, E. (1965).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 perspective. In P.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 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_____ (1965).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316-331.
- Sutherland, E. H. (1970). Differential Association. *The Soci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M. E. Wolfgang. L. Savitz and N. Johnston(Eds.). New York: John Wiley.
- _____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Symonds, D.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einer, I. 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Abstract >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on Delinquency
: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YeongHee Ko

Major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ungHwa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whether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would have any mediating effect on self-resilience. For that, we selected as samples 78 middle school students in 27 regions nationwide and adolescent panel of KCYPS(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10.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1,941 male and female students out of 1,075 male students and 1,033 female students among 2,108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were currently first graders of high school in 2013

The measuring instrument was follow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questionnaire,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ego-resilience.

The data were processed statistically by using SPSS 18.0, a statistical

program. We performed 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positive, negative), ego-resilience, delinquency and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look into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mediating variables.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critical factors related to sociology of population for the difference of delinquency were gender, grade satisfaction, juvenile delinquent friend.

Second, positive rearing attitude, negative rearing attitude, and ego-resilienc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linquency in connection with parent's rearing attitude. In other words, positive rearing attitude and ego-resilienc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delinquency while negative rearing attitud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delinquency.

Third, no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ego-resilience was manifested when positive rearing attitude influenced the delinquency in the relationship of positive and negative rearing attitude with delinquency in connection with parents' rearing attitude. In other words, ego-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when negative rearing attitude influenced the delinquency.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actively use the programs conducive to improving the perception towards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rovide the education tailored to enhance ego-resilience, ultimately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given that positive rearing attitude and ego-resilience may affect the delinquency.

<설문지>

자아탄력성척도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1	2	3	4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1	2	3	4
3	나는 새롭고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1	2	3	4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	2	3	4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2	나의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것이다.	1	2	3	4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1	2	3	4